

‘청년들을 사전투표장으로’

민중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전북대 등 도내 대학 찾아 집중유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 청년 위원회와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청년들의 20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나흘간 지역 주요 거점 대학 집중 유세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유세는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호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날 유세는

아날 오전 11시에 지역 주요 거점 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 앞에서 실시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 동시다발적 집중 유세가 진행된다.

특히, 선대위는 시끄럽고 일방적인 유세가 아닌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친화적 유세 활동인 줄길 유세를 시작했다.

줄길은 걸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다.

줄길 유세 후 선대위 청년들은 유세 차에 올라 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서연 공동선대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투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지 생활하는 대학생, 직장인 등 200세대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도내 거점 대학 중심에서 청년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들의 든든한 우군” | 전북 청년 2348명,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호소

대선 사전투표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전북 청년 2348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전북 청년특보단은 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의 든든한 우군이였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의 꿈을 이룰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특보단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청년배당과 청년면접수당, 군입대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등 이미 청년들을 위한 약속을 실천해왔던 후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 등과 같은 공약으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을 분열시키고, 멸종난관으로 협종 정서를 선동해 청년들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보단은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대선후보가 오히려 청년을 분열시키고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공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꾸준히 사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보단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공용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신규주택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왔다고 공약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전북 청년특보단은 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의 든든한 우군이였다”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목했다.

이와 함께 ▲군 장병 임금 최저임금 수준 인상 및 휴대폰 요금 인하,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 확대, ▲학점비례등록금제 도입 등의 공약도 열거했다.

특보단은 또,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청년 일자리는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보단은 “우리 전북의 청년들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지역에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며 “이 후보의 재민금 -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부수도권’ 정책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얻는데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보단은 “청년 맞춤형 공약과 경제성장,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별, 세대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적 비전이 허약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결론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주민주권 실현”

전북 14개 시군 마을자치혁신활동가 1만145명,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3.1절을 맞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 민족이 봉기한 3.1운동과 같은 구국의 심정으로 전국 마을자치 혁신 활동가 5만명 이재명 후보 지지 운동에 전북 14개 시군에서 1만145명 마을자치혁신활동가가 지지선언에 나섰다.

“기본권이 보장되는 마을”을 위해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을 앞두고 3월 1일 전국의 5만 마을자치혁신활동가들이 전국 동시다발로 이재명후보를 지지에 전북 14개 시군 마을자치 혁신활동가 1만145명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을 가졌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 자치분권전북본부 마을자치혁신활동가는 김신화 전북본부장, 전덕일 전주시 공동본부장, 유지희 전주시 공동본부장, 김희정 전주시 공동본부장, 정상도 전주시 공동본부장, 서성영 전주시 공동본부장, 김희정, 전주시 공동본부장, 장현우 임실군 공동본부장, 박형이 무주군 공동본부장, 김원희 부안군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인 전북공동선대위원회 겸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조직혁신총괄단 총괄단장인 김윤덕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인 양경숙 국회의원, 자치분권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전주시의회 강동호 의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제대로...” 전북 문인 300명이 2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1만145명의 마을자치혁신활동가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미디어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마을정책을 함께 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그동안 14개 전복 시·군을 순회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지지선언 참여자를 결집시켰다.

농산어촌에 직면한 고품위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주민주권 실현이다. 이날 지지선언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지지선언에 나선 1만145명 전북 마을자치혁신활동가들은 “차지 앞으로, 분권 제대로, 마을위해 이재명”이란 슬로건으로 대동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세운동”으로 남은 선거기간동안 주민 3명씩 만나 10만명의 지지자를 만날 것을 결의했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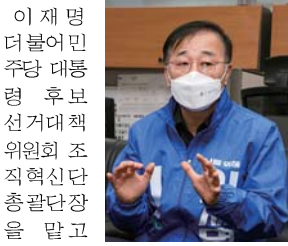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현재 추세라면 이재명 후보 당선 확실”

김윤덕 의원 “TV토론 영향 커... 수도권 움직임 보이기 시작”

8일까지 시·도의원들과 이 후보 릴레이 지지 유세 이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전주갑)은 “현재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일 전주에서 이병도 전북도의회와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 릴레이 지지 호소에 나섰다. 시·도의원 등과 릴레이 지지 유세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문제 등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문제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20대다”라며 “20대들의 불만이 바닥에 누적되어 있다. 민주당이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정치, 정치교체 등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0대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병도 전북도의회를 시발점으로 오는 8일까지 시·도의원과 출마예정자가 중심이 돼 12차례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이 각 지역에서 이어진다”며 “남은 기간 전북도민 중 마음을 잡지 못한 중도층 집중 공략을 통해 이재명지지 80% 목표 투표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많은 구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정책선거 홍보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북도청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피란산호동에 맞춰 이색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었다. 전북선거위는 사전투표일 전에 2회, 선거일 전에 2회 총 4회에 걸쳐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퍼포먼스를 실시해 선거일 직전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사전투표로 희망 열어가자”

김제 용지 FC회원 100여명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전북 김제시 용지 FC 회원 100여명(회장 박종일)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제시 용지 FC 박종일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마을에서 지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오래 됐고, 마을 집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절벽으로 몰린 김제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두뇌를 소유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김제지역 축산인 및 청년 농업인 21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정기집 한우협회 김제지부장은 “김제지역 축산인과 청년 21명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청년농업인들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돈승 부분부장 ‘사전투표 독려단’ 출범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분부장이 ‘사전투표 독려단’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안주군민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돈승 부분부장은 2일 당원 및 지지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독려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섰다. 이 부분부장을 비롯한 사전투표 독려단은 오는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안주군 주요 곳곳을 돌며, 안주군 유권자의 사전투표를 강력히 호소할 방침이다.

이 부분부장은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그리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거”라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더 적합한지를 국민께서 선택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이, 이 부분부장은 “역대급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관건은 안주군을 비롯한 전북에서 80% 이상의 투표율”이라며 “안주군에서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32.68%,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30.29%, 2020년 제21대 총선 37.00% 등의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40%가 넘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유호상 기자